



기본소득의 모험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 들어가는 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지난 온 길을 중심으로  
기본소득 운동의 흐름을 살펴보고자 하는  
이 글은 다음 세 가지를 다룬다.

- ① 기본소득 아이디어 도입의 배경과 맥락
- ② 한국네트워크의 역할과 활동
- ③ 약간의 전망



## 서술의 방법

### 일종의 참여 관찰

- ① 도입 배경과 맥락에서는 심성 혹은 에피스테메를 드러내려고 하는데,  
이것이 이후 운동에 강한 흔적을 남겼기 때문
- ② 역할과 활동에 관해서는 연대기적 서술
- ③ 전망과 관련해서는 약간의 평가와 쟁점 제기



## 시기구분



전사

2009~2013년

2014년~현재

---

87년 체제에서  
97년 체제까지

창립과 초기 활동

회원 조직으로의 전환과  
두 방향의 활동  
(연구와 사회 활동)



## 87년 체제의 효과와 97년 체제의 틈입 (1)

87년 체제의 성립은 기존의 좌파와 진보 운동 세력에게 두 가지 과제를 부여했다.

하나는 87년 체제의 완성 혹은 민주화 이후의 민주화이며,  
다른 하나는 이 체제 속에서 스스로가 의미 있는  
세력으로 자리 잡는 것이었다.

이는 역사적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 및 한국 경제의 발전  
(중진 자본주의 혹은 선진국의 문턱)이라는 역사적 변화 속에서  
이루어져야 했다.



## 87년 체제의 효과와 97년 체제의 틈입 (2)

- 이 속에서 이념과 전략이라는 면에서 기존의 좌파와 진보 운동 세력은 몇 가지로 분화된다.
- 혁명적 공산주의(사실상 노동자주의), 자율주의, 포스트구조주의, 사회민주주의(복지국가 좌파), 민족공산주의(이른바 주사파 혹은 NL), 자유주의 좌파(민주당 입당파) 등등

**C**

## 87년 체제의 효과와 97년 체제의 틈입 (3)

- 다른 한편 역사적 사회주의 체제도 근대성에 포획되어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더 나아가 문명 자체에 대한 비판으로까지 이어지는 생태주의적 흐름이 형성되었다.
  
- 여기서 주도권을 잡은 것은 사회민주주의 계열과 민족공산주의 계열이며, 이들은 자유주의 좌파와 함께 복지국가의 제도와 사회적 배치의 정렬에 나섰다: 민주노총의 합법화에서 시작해서 복지 국가의 몇 가지 요소의 제도화까지



## C

## 87년 체제의 효과와 97년 체제의 틈입 (4)

이는 IMF 외환위기 속에서 성립한 이른바 97년 체제의 성립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었으며, 복지국가와 관련해서 서로 다른 방향의  
이중적 효과를 낳았다.

하나는 복지국가의 몇 가지 제도적 요소를 확보했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복지국가를 뒷받침하는 사회 세력의 배치는  
흩어졌다는 것이다.

**C**

## 87년 체제의 효과와 97년 체제의 틈입 (5)

이런 상황은

한편으로 현실적 유토피아로서의 사회 체제의 진보를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라는 문제의식과

다른 한편으로

이를 97체제라는 변화된 사회경제적 지형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 조우 (1)

- 현대적 의미의 기본소득은 1986년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서 탄생을 알렸다.
- ‘맑스주의의 위기’, 역사적 사회주의 체제의 경화, 자본주의와 복지국가의 위기, 산업 문명의 생태적 한계에 대한 인식 등을 배경으로 하여
- 여성주의, 서구 맑스주의(비판 이론과 분석적 맑스주의), 유토피아 사회주의, 생태주의, 급진민주주의의 흐름이 기본소득 아이디어로 모였다.



## 조우 (2)

- 이때 기본소득 아이디어는 어떻게 하면 관료제의 힘을 약화시키면서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였다.
- 또한 한편으로는 인간 문명의 생태적 한계에 대한 인식이,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계급)의 종말에 관한 조숙한 인식이 있었다.



## 조우 (3)

2000년대 초반 관련 논문 일부 소개

2006-2011년 사이에 기본소득에 관한 연구 보고서 출판, 사회당 대선 후보의 공약 등으로 한국에서도 기본소득이 출현했다.

2009년부터 <녹색평론>이 (지역) 화폐, 지역 경제, 사회신용론 등의 관점에서 기본소득을 소개하기 시작



## 조우 (4)

여기에는 기존 좌파의 이론과 실천을 혁신하려는 시도가 배경으로 있었는데, 정보자본주의에서 가치론의 변형, 현실에서 유토피아의 계기를 찾으려는 연기금 사회주의론, 자율주의적 공산주의, 정치적 현실주의 등이 그것이다.

배경이 이러했기 때문에, 초기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전통적인 좌파적 관점의 재원 마련, 기본소득의 정당성에 관한 정치 철학적 논구, 미래 사회와 기본소득의 관계 등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 성립

- **2009년 5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창립: 소규모 연구 서클**
- **2010년 1월 서울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
- **2010년 7월 제13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참가 및 지부 승인**
- **2012년 1월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 C 간헐

연구, 교육 기관으로서의 활동

한국 사회의 다양한 곳으로 기본소득 의제가 흐르도록 하는 공식적,  
비공식적 활동

출판, 학술대회, 교육 등등

회원 조직으로 전환

지역 네트워크 확대



## C 흐름

성남 청년배당

2016년 서울 BIEN 대회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과 기본소득

2018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플랫폼 자본주의/ 기후위기

**C**

## 분기점 (1)

- **한국에서 기본소득 운동의 구심점으로 한국네트워크는 상당한 역할을 해 왔다고 할 수 있다.**
- **우선 한국의 대표적인 기본소득 연구자, 사회운동가, 정치적 흐름 등을 모아냈을 뿐만 아니라**
- **기본소득을 둘러싼 이론적, 실천적 논의를 형성하고 주도했으며,**



## 분기점 (2)

- 청년배당(기본소득), 농민 기본소득 등 구체적인 정책의 입안과 실행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했고,
- 다양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통해 시민사회에 일반 시민에게 기본소득 의제를 확산하는 데 기여했다.
- 또한 규모는 작지만 전국적 차원의 조직망을 형성함으로써 이론과 담론 주도 집단으로서뿐만 아니라 사회운동의 틀을 만들어내는 시도를 했다.



## 분기점 (3)

하지만 상황은 여러 면에서 급하게 바뀌고 있고, 이에 따라 네트워크의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고 이에 맞는 배치를 할 필요가 생겼다.

또한 조직 내적으로도 좀 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틀을 재구성할 필요가 생겼다.



## 전망 (1)

불평등과 경제적 불안전의 심화, 기후위기, 파괴적 기술의 발전 등은 분명 인류에게 심각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도전에 적절하고 진지하게 대응하기 위해 용기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계획과 전략이 필요하다.



## 전망 (2)

- 우리는 무엇보다 기본소득을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때 정의는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준다는 고전적인 의미이다.
- 하지만 기후위기는 이런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인간적 토대 자체를 허물고 있다. 따라서 정의의 실현은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것과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된다.
- 이는 체제 전반의 재구조화를 요구하는 것이며, 이를 드러내는 이름 짓기가 필요할 것이다.



## 전망 (3)

우선 기본소득이 무엇을 지향하는가 그리고 그 근거는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오늘날 기본소득은 더 이상 주변적 의제가 아니라 사상의 장터에서 경쟁하는 어떤 것이 되었고,

이 속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근거에서 기본소득을 주장하거나 기본소득이 아닌 것을 그 이름으로 말하는 사태를 목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 전망 (4)

여기에 더해 저성장과 고용 저하, 글로벌 경제 침체 가능성 등은 시급하게 소득의 사회적 이전을 포함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른 한편, 포괄적인 기본소득 제도가 단번에 실시되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인식이다. 사회 여러 부문의 소득 보장을 기본소득의 이름으로 포획하는 ‘범주형 기본소득의 실시와 확대’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선택지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책 개발 역량의 확대와 정렬이 필요할 것이다.



## 전망 (5)

다른 한편으로, 기본소득은 모두의 요구가 될 수 있지만, 그 누구의 요구도 되지 않았다는 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방도가 사회 각 부문에서 기본소득을 최소한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요구로 채택하도록 하고, 이를 네트워크로 결집하는 것이다. 기본소득 운동의 조직 명칭을 네트워크로 삼은 것은 이런 배경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전망 (6)

이런 시도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지만, 각 부문의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요구라는 위치에서 알 수 있듯이, 대중적 움직임의 기반이 되지 못하고 있다.

회원 조직으로의 전환과 지역 네트워크의 건설은 이런 난점을 타개하기 위한 시도였으나, 이 또한 기본소득이 가지는 부차적 요구의 한계 속에서 충분히 구현되지 못했다.



## 전망 (7)

이런 현실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자기 재생산이 가능한 수준의 문턱을 넘기 위해서 회원 조직으로서 더 확대되어야 하는 한편, 기본 소득 자체를 독자적인 요구로 내세우는 대중 조직으로서 발전하는데에 중대한 도전이다.

# 감사합니다

기본소득의 모험

**BIKN**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